



“순창 농특산물 사주세요”

군 9월까지 공무원·사회단체 등 참여 복분자·블루베리 등 구입

순창군이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범군민 농특산물 사주기 운동에 나섰다.

군은 복분자, 블루베리, 매실, 오디 등 지역의 대표적 특화작목의 본격적 수확철이 도래함에 따라 공무원원은 물론 사회단체, 유관기관, 향우 등이 참여하는 농특산물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특히 지난해 복분자 재고량이 순창지역에만 200여톤에 달하는 등 복분자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에 진행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을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돌입했다.

우선 공무원들이 농산물 팔아주

기 운동에 앞장선다. 군 산하 전직원이 1공무원 1품목이상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시 친인척과 지인을 생산자와 연계해 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순창농산물 구입 신청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친환경농업과 유통마케팅과와 각 읍면 산업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활성화 시킨다. 군은 우선 고속도로 강전산 휴게소 임시 직거래 장터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 동대문구, 부산 사상구 등 지매 결연단체 등에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읍면별로 자매결연 지역과의 직거래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민 농촌수확체험 및 코레일 관광객 유치에 수확시기에 맞춰 추진해 농특산물 직거래 물량을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대규모 블루베리 어울마당을 열어 블루베리 직거래에 앞장선다.

순창로컬푸드 행복한 장터 쇼핑몰(www.sunchangfood.co.kr)과 군대표 홈페이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특히 사회단체 유관기관, 관내기업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순창 지역에서는 이미 오디와 매실이 본격적 수확에 들어 갔고 복분자와 블루베리도 이번주부터는 본격 수확에 들어간다. 오디는 270톤, 매실 1,834톤, 블루베리 6,221톤, 복분자 1,067톤이 생산될 것으로 군측은 예상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오수 의견공원 관광 활성화 총력

임실군은 오수 의견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의견공원 내 문화체육센터를 갖추고 헬스, 탁구 등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배드민턴, 탁구 동호회를 조직해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누각과 비가림 의자 및 각종 야외 운동시설과 44,800㎡ 면적의 잔디공원을 조성하고 연못과 분수대를 운영하는 등 쾌적한 경관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의견공원 주위에 오수천이 흐르고 있어 다양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117,490㎡의 의견관광지는 의견 휴련장으로 조성해 사용하는 한편, 앞으로 양궁장과 장미와 철쭉단지를 조성해 의견의 고장 오수면을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견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시설 및 환경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호남 풍산면, 영남 풍산읍, 지역교류 추진 ‘화제’

지역명이 같은 호남의 순창군 풍산면(면장 임재호)과 영남의 안동시 풍산읍(읍장 김태중)이 읍면간 동서 지역교류를 추진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풍산면은 안동시 풍산읍과 상호발전을 위한 지역교류에 합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교류는 평소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외교류를 모색하던 임재호 풍산면장이 양 지역의 명칭이 풍산(豊山)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5월 13일 안동시 풍산읍에 교류를 제안해 성사됐다.

양 지역 교류제안에 대해 안동시 풍산읍에서는 지난 5월 24일 회의를 통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오는 6월 17일 열리는 ‘풍산읍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에 초청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세부 교류 방향은 상호 협의에 나가자고 밝혔다.

풍산면은 초청에 적극 응하고자 사회단체 대표 및 풍산농악 한마당과 단원 등 40여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 모두 최근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확장·개통되고, 이번 풍산읍과의 동서지역 교류를 통해서 영호남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대단히 반기는 분위기이다.

안동시 풍산읍은 중앙고속도로(서안동IC) 및 34호 국도변에 위치 교통요충지로 경북도청사가 이전된 행정배후도시로 34개 행정리에 3,562가구 7,166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안동시의 유일한 읍으로 풍산평야와 한양유등지원센터 및 바이오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특산품으로 풍산김치, 양반쌀, 안동한지가 유명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베리·바이오연, 중기 기술 강화사업 선정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 확보... 지역 중소기업 3곳 제품개발 지원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응용)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됐다.

7일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해 고창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 신토복분자(영)(대표 임영례), 사임당푸드(영)(대표 조해주), 하랑(영)(대표 박춘근)과 함께 5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소재한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R&D 역량강화 기술개발지원, R&D 사업과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의 사업으로 운영된다.

세부사업은 신토복분자(영)에서 ‘전통음료 제조기법을 활용한 수출용 아로니아-보리 혼합음료 개발’, 사임당푸드(영)는 ‘소비자 기호성을 반영한 전통 한과의 신제품 개발’ 및 ‘전통 식품 대중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하랑(영)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대사 조절을 통한 활력 강화 블루베리 열매 및 잎 액상차 신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및 ‘미토

콘드리아 에너지대사 조절을 통한 활력강화 블루베리 열매 및 잎 액상차 시제품 제작’의 주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산학연 협력 및 맞춤형 기술혁신 토털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소의 역량 확대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수요 중심의 연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공용차량 담당자 안전운전 소양교육 실시

고창군이 공직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올바른 운전자세 확립을 위해 ‘안전운전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3일 공용차량 담당자 및 운전직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안전운전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로 초빙된 도로교통공단 최충신 교수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사례를 동영상 등을 통해 설명했으며 특히 운전 중 네비게이션 및 스마트폰 조작 금지 등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남원시,희망마을만들기 사업선정

남원시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16년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주천면 지역공동체의 ‘지리산 속 더불어 살아가는 춘향골 용담마을’ 계획안이 최종 선정되었다.

희망마을만들기는 관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얻은 결과로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리·운영까지 해당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의견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내년까지 약 2억원을 들여 희망마을에 선정된 주천면 용담마을의 마을회관(83)과 주변 공터(510)를 활용해 마을 복합공동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마을 회관의 1층은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2층은 증축해 북카페·다문화 학당 등을 조성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변 공터는 나무 한수운동 등을 통해 마을마당 및 화단을 조성하고 마을 돌담길을 복원하여 옛 정취를 느낄 수 공간으로 꾸미어 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제초제 적기살포 당부

임실군이 모내기를 일찍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제초제 처리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이상고온으로 잡초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적기 제초시기를 놓칠 경우 제초제 저항성 잡초 발생을 우려하며, 잡초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알맞은 제초제 선택과 적기살포를 당부했다.

벼보다 경합력이 우세한 잡초는 이삭수 감소 및 도복을 유발해 막대한 수량 및 품질저하를 초래하며, 특히 잡초 발생이 심한 논은 경우 최대 수량의 80%까지 감소하고 완전미율도 33%정도 감소시키는 등 쌀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논 잡초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벼 재배 양식과 논 잡초발생 상태를 확인하고 알맞은 제초제를 선택해 적당량을 살포해야하며, 잡초발생이 적은 논은 초기처리제 1회만으로 방제가 가능하지만 일년생 잡초와 올방개 등 다년생 잡초가 많은 논은 경우 초, 중기 방제와 중, 후기 방제 등으로 반드시 2회 이상 체계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약제 살포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분당 물 관리이며 물을 충분히 담수한 후 살포하고 제초제 처리 후 5~7일 이상 토양표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수기간을 유지해야 제초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제시기를 놓쳤거나 후기에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는 후기 경엽처리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취학아동 미술 스피치 교육

순창군이 최근 정서 행동 위기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자신감과 사고력을 향상시켜주는 미술 스피치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은 20여명의 정서 행동 위기아동들이 참여한 청소년센터 드림스타트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술스피치 교육이란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미술’을 통해 즐거움과 긍정적인 자기 경험의 기회를 갖고 문제 해결 능력 등 또래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미술시범과 미술멘트 연습, 티끌 미션 발표, 미술 해법 및 도구 활용을 위한 미술연습하기, 미술해법발표 등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군은 오는 7월 9일 미술스피치 교육을 1회 더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